

吉字歌



[해제]

<吉字歌>는 『莫笑歌』라는 제목의 활자본 가사집(14*19.2cm)에 수록된 작품으로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吉字歌>의 정확한 창작연대와 작자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일한 가사집에 수록된 다른 가사 작품인 <莫笑歌>가 1919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강대성(姜大成, 1890~1954)이 창시한 갱정유도(更定儒道)의 영향 하에 『莫笑歌』가 간행된 바, 그에 수록된 <吉字歌> 역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吉字歌>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 ‘길(吉)’이라는 글자를 토대로 갱정유도의 교리와 이치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매우 짧은 분량의 <吉字歌>는 ‘길아(吉我) 길아(吉我)/ 아길아(我吉我)’라며 대도(大道)에 부는 봄바람과 같은 ‘길(吉)’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아는 나는 나 자신의 ‘길(吉)’ 또한 알고 있으며, 서로 만나 ‘길(吉)’해지고, 나의 하늘님도 ‘길(吉)’할 때를 알며, 경사스러움이 많으니 크게 ‘길(吉)’해지고, 흥(凶)한 것이 떠나가고 ‘길(吉)’함이 오며, 오늘의 ‘길(吉)’함에 지자(知者: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사람)가 나에게 찾아오며 모든 사람들과 내가 ‘길(吉)’함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작품은 ‘길(吉)’이라는 글자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 그대로 ‘길(吉)’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길(吉)’을 찾는 것으로 끝이 난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吉字歌>가 수록된 가사집 『莫笑歌』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이 모두 국한문 혼용으로 필기된 가사인데 반해, <吉字歌>는 작품 전체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작품은 일반적으로 국문시가(國文詩歌)라 일컬어지는 가사 장르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吉字歌>의 장르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

무삼일을 하자하고 나올코서 네그르다
 道德根本 恣置하니 이런畚畚하고 갑갑한일
 쏘잇난가 나난分明 農夫草君 人生이라
 賤人乞人 이른말을 부딪부딪 잇지말고
 잇씨生覺 하여보소 아라닌다 아라니여
 道를알고 教를아네

습字歌

습字노리를 볼너보시 습字노리를 볼너봅시다
 습합습字 이理治 萬物精氣 우리들
 天父地母 습합습 조홀호싸 男女습
 先天后天 우리두리 陰陽造化 습합습
 日月精氣 杼精氣 明明其德 습합습鬼神吉凶 杼알손야 四時順序 습합습
 乙아乙아 太乙아 弓아弓아 天弓아
 左弓右乙 습합습 道道 습합습
 教教 습합습 人心人心 습합습
 습字노리 이노리 天意自然 안인가
 놀자놀자 만날逢字로 놀자 만날逢字
 이글싸 大道春風 만날逢 吾來吾來

吉字歌

오늘날 江山精氣 타고나 萬物生生
이理治 陰陽陰陽 만날逢 好時好時 好時節

吉字歌

吉我吉我 我吉我 大道春風 我吉我
知之知之 萬事知 我之知之 知我吉
其吉吾吉 相逢吉 吉逢吉逢 我逢吉
吾主知主 知時吉 多慶多慶 多多吉
建陽立春 大吉我 去者爲凶 來者吉我
三十六計 主字吉 主字主字 尋主吉
今日大吉 尋我吉 我心主之 大吉主
主人吉日 今日吉 知者來我 我心吉
人人我心 尋我吉

正道仙林下鄭氏歌

鄭王鄭王鄭氏王 林下道仙鄭氏王 太乙天上雲中王
乙龍乙龍鄭乙仙 何道中之下降고 道合道合天地合
夫婦作配何人고
萬物生生 오늘 合德春情 오노라
나온다 나온다 天道下降 나오네
아라라 아라라 鳥知路를 아라라
乙아乙아 식鳥 太乙仙中 鳥知路
牛鳴牛鳴 뉘牛鳴 牛鳴난야 牛鳴낫소
牛鳴弓乙 大道通 東西洋을 습하네
吾覺吾覺 吾道覺 文武合德 吾道覺世間衆人 皆同歸 萬事知之 造化定
見者心和 造化定 讀者心和 造化定
自心自樂 造化定 드러보소 드러바
平生所願 어딘가 安民保國 왓네
조심하자 조심하여 萬古드문 이말삼
드러보고 조심하식 무서우신 저하날
뉘가감이 이말삼 精神차려 알식

[현대역]

무슨 일을 하자 하고 나 옳고서 네 그르다
 도덕근본(道德根本) 망치(攄置)22하니 이런 답답(畚畚)하고 갑갑한 일
 또 있는가 나는 분명(分明) 농부초군(農夫草君) 인생(人生)이라
 천인(賤人) 걸인(乞人) 이른 말을 부디 부디 잊지 말고
 이때 생각(生覺) 하여보소 알아낸다 알아내어
 도(道)를 알고 교(教)를 아네

습字歌

합자(合字)23노래를 불러보세 합자(合字)노래를 불러 봅시다
 합(合)할 합자(合字) 이 이치(理治) 만물정기(萬物精氣) 우리 둘
 천부지모(天父地母)24 합(合)할 합(合) 좋을 호(好)자(字) 남녀(男女) 합(合) 선천후천(先天后天)25 우
 리 둘이 음양조화(陰陽造化) 합(合)할 합(合)
 일월정기(日月精氣)26 뉘 정기(精氣) 명명기덕(明明其德)27 합(合)할 합(合)
 귀신길흉(鬼神吉凶)28 누가 알겠느냐 사시순서(四時順序)29 합(合)할 합(合)
 을(乙)아 을(乙)아 태을(太乙)30아 궁(弓)아 궁(弓)아 천궁(天弓)아
 좌궁우을(左弓右乙)31 합(合)할 합(合) 도도(道道) 합(合)할 합(合)
 교교(教教) 합(合)할 합(合) 인심인심(人心人心) 합(合)할 합(合)
 합자(合字)노래 이 노래 천의자연(天意自然) 아닌가
 놀자 놀자 만날 봉(逢)자(字)로 놀자 만날 봉(逢)자(字)
 이 글자 대도춘풍(大道春風)32 만날 봉(逢) 오래오래(吾來吾來)
 오는 날 강산정기(江山精氣) 타고나 만물생생(萬物生生)33
 이 이치(理治) 음양(陰陽)34 음양(陰陽) 만날 봉(逢) 호시호시(好時好時) 호시절(好時節)35

吉字歌

길아길아(吉我吉我)1 아길아(我吉我) 대도춘풍(大道春風)2 아길아(我吉我)
 지지지지(知之知之)3 만사지(萬事知)4 아지지지(我之知之)5 지아길(知我吉)6이라
 기길오길(其吉吾吉)7이 상봉길(相逢吉)8하니 길봉길봉(吉逢吉逢)9이 아봉길(我逢吉)10이라
 오주(吾主)11지주(知主)12 지시길(知時吉)13 다경다경(多慶多慶)14 다다길(多多吉)15이라
 건양입춘(建陽立春)16 대길아(大吉我)17 거자위흉(去者爲凶)18 래자길아(來者吉我)19
 삼십육계(三十六計)20 주자길(主字吉) 주자주자(主字主字) 심주길(尋主吉)21이라
 금일(今日) 대길(大吉)22 심아길(尋我吉) 아심주지(我心主之) 대길주(大吉主)라
 주인길일(主人吉日) 금일길(今日吉)23 지자래아(知者來我)24 아심길(我心吉)25
 인인아심(人人我心)26 심아길(尋我吉)27이라

正道仙林下鄭氏歌

정왕정왕정씨왕(鄭王鄭王鄭氏王)1 림하도선정씨왕(林下道仙鄭氏王)2 태을천상운중왕(太乙天上雲中王)3

을용을용정을선(乙龍乙龍鄭乙仙) 하도중지하강(何道中之下降)고4 도합도합천지합(道合道合天地合)
부부작배하인(夫婦作配何人)고5
만물생생(萬物生生)6 오늘 합덕춘정(合德春情) 오노라
나온다 나온다 천도하강(天道下降)7 나오네
알아라 알아라 조지로(鳥知路)8를 알아라
을(乙)아 을(乙)아 새 조(鳥) 태을선중조지로(太乙仙中鳥知路)9
우명(牛鳴)10 우명(牛鳴) 뉘 우명(牛鳴) 우명(牛鳴)나나 우명(牛鳴)났소
우명궁을(牛鳴弓乙) 대도통(大道通)11 동서양(東西洋)을 합(合)하네
오각오각(吾覺吾覺)12 오도각(吾道覺)13 문무합덕(文武合德) 오도각(吾道覺)
세간중인(世間衆人)14 개동귀(皆同歸)15 만사지지(萬事知之)16 조화정(造化定)17
견자심화(見者心和)18 조화정(造化定) 독자심화(讀者心和)19 조화정(造化定)
자심자락(自心自樂)20 조화정(造化定) 들어 보소 들어봐
평생소원(平生所願) 어디인가 안민보국(安民保國)21 왔네
조심하자 조심하여 만고(萬古)에 드문 이 말씀
들어보고 조심하세 무서우신 저 하늘
누가 감히 이말씀 정신(精神)차려 아세

[각주]

- 22) 망치(唎置) : 망각.
- 23) 합자(合字) :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드는 것.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 24) 천부지모(天父地母) :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라는 뜻.
- 25) 선천후천(先天后天) : 천도교가 창건되기 이전의 세상을 뜻하는 처음 교(敎)를 연 1860년 4월 5일 이전까지의 세상과 천도교가 창건된 이후의 세상을 뜻하는 처음 교(敎)를 연 1860년 4월 5일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 1) 길아길아(吉我吉我) : 길(吉)아 길(吉)아, 길(吉)을 부르는 것.
- 2) 대도춘풍(大道春風) : 큰 길에 부는 봄바람.대도(大道)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도리 이자 한울님의 도를 뜻하기도 한다.
- 3) 지지지지(知之知之) : 지지(知之)란 안다는 것을 뜻한다.
- 4) 만사지(萬事知) :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알다.
- 5) 아지지지(我之知之) : 나는 안다.
- 6) 지아길(知我吉) : 나의 길함을 안다.
- 26) 일월정기(日月精氣) : 해와 달의 정기.
- 27) 명명기덕(明明其德) : 천도교에서, 그 큰 덕을 밝히는 일을 뜻한다.
- 28) 귀신길흉(鬼神吉凶) : 귀신이란 사람에게 화(禍)와 복(福)을 내려 준다는 신령(神靈)을 뜻하며, 길흉은 운이 좋고 나쁨을 뜻한다.
- 29) 사시순서(四時順序) : 봄·여름·가을·겨울이 오는 순서.
- 30) 태을(太乙) : 천지 만물이 나고 이루어진 근원 또는 우주의 본체를 이르는 말.
- 31) 좌궁우을(左弓右乙) : 궁을(弓乙)에서 궁(弓)은 하늘을 의미하며, 을(乙)은 땅을 의미한다.즉, 궁을은 천지(天地)를 뜻하는데 궁의 음양을 좌궁우궁(左弓右弓), 을의 음양을 좌을우을(左乙右乙)이라고 하기도 한다.또한 천도교의 깃발인 궁을기는 좌궁과 우을, 그리고 중(中)의 삼원으로 구성된다.
- 32) 대도춘풍(大道春風) : 큰 길에 부는 봄바람.
- 33) 만물생생(萬物生生) : 만물의 생기가 왕성함.
- 34) 음양(陰陽) : 음양은 동양의 철학적 사교의 틀로 음(陰)은 여성적인 요소로 양(陽)은 남성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이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기운으로 인식된다.(해와 달, 남성과 여성, 낮과 밤, 불과 물, 여름과 겨울 등)
- 35) 호시절(好時節) : 좋은 시절.
- 1) 정왕정왕정씨왕(鄭王鄭王鄭氏王) : 여기에서 정씨왕은 『격암유록(格菴遺錄)』 등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정도령을 뜻하는 것으로 그는 하늘의 섭리인 정도와 정령을 가지고 올바른 세상을 구현하고, 고통 받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다.
- 2) 림하도선정씨왕(林下道仙鄭氏王) : 수풀 아래 도선 정씨왕.
- 3) 태을천상운중왕(太乙天上雲中王) : 태을(천지 만물의 근원, 우주의 본체) 하늘 위의 구름 가운데의 왕.
- 4) 하도중지하강(何道中之下降)고 : 어떠한 도 가운데 하강한 것인고.
- 5) 부부작배하인(夫婦作配何人)고 : 부부가 짝을 이룸에 어떤 사람인고.
- 7) 기길오길(其吉吾吉) : 그 길(吉)함과 나의 길(吉)함.

- 8) 상봉길(相逢吉) : 서로 만나 길(吉)하다.
- 9) 길봉길봉(吉逢吉逢) : 길(吉)함이 만나다.
- 10) 아봉길(我逢吉) : 나의 길(吉)함을 만나다.
- 11) 오주(吾主) : 우리 주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12) 지주(知主) : 주(주인)를 알다.
- 13) 지시길(知時吉) : 길(吉)한 때를 알다.
- 14) 다경다경(多慶多慶) : 경사스러움이 많다.
- 15) 다다길(多多吉) : 길(吉)함이 매우 많다.
- 16) 건양입춘(建陽立春) : 건양(建陽)이란 조선 고종 때의 연호(年號)인데 이 연호가 쓰여지기 시작한 1896년, 그해 입춘(立春)부터 입춘방에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문구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는 건양, 즉 우리나라(대한제국)에 경사가 많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17) 대길아(大吉我) : 크게 길함.
- 18) 거자위흉(去者爲凶) : 떠나가는 것은 흉이다.
- 19) 래자길아(來者吉我) : 오는 것은 길(吉)이라.
- 20) 삼십육계(三十六計) : 서른여섯 가지의 꾀, 많은 모계(謀計)를 뜻한다.
- 21) 심주길(尋主吉) : 주인(주)의 길(吉)함을 찾다.
- 22) 대길(大吉) : 운이 매우 좋음, 또는 일이 매우 상서로움.
- 23) 금일길(今日吉) : 오늘의 길(吉)함.
- 24) 지자래아(知者來我) : 지자(知者)
- 25) 아심길(我心吉) : 나의 마음이 길(吉)하다.
- 26) 인인아심(人人我心) : 사람들과 나의 마음.
- 27) 심아길(尋我吉) : 나의 길(吉)함을 찾다.
- 6) 만물생생(萬物生生) : 만물의 생기가 왕성하다.
- 7) 천도하강(天道下降) : 하늘의 도가 내려오다.
- 8) 조지로(鳥知路) : 새가 아는 길.
- 9) 태을선중조지로(太乙仙中鳥知路) : 태을선 가운데의 새가 아는 길.
- 10) 우명(牛鳴) : 소 울음소리. 이때 소 울음소리는 서로 화합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를 말한다.
- 11) 대도통(大道通) : 대도(大道)가 통한다.
- 12) 오각(吾覺) : 나의 깨달음.
- 13) 오도각(吾道覺) : 나의 도를 깨달음.
- 14) 세간중인(世間衆人) : 세상의 많은 사람들.
- 15) 개동귀(皆同歸) : 모두 함께 돌아가다.
- 16) 만사지지(萬事知之) :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것.
- 17) 조화정(造化定) : 조화가 정해지다'라는 뜻으로 '待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18) 견자심화(見者心和) : 본 사람의 마음이 온화해지다.
- 19) 독자심화(讀者心和) : 읽은 사람의 마음이 온화해지다.

20) 자심자락(自心自樂) :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즐기다.

21) 안민보국(安民保國) :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지킴.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